

이석행위원장 '촛불노동자 힘으로 독재심판을'

노동과 세계 | 승인 2008.07.02 18:19

민주노총 2일 전면 총파업 돌입...이명박정권 심판투쟁 본격화...7월 노동자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

공안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6일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관보고시 강행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이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 것.

민주노총은 2일 오후 6시 서울 시청광장에 1만여 조합원이 집결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1만여 조합원들은 “미국에게 굴복 말고 협상무효 전면재협상, 이명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2]
민주노총은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박2일 집중투쟁을, 5일 100만 촛불항쟁에 합류하는 동시에 7월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심판투쟁 전개 ▲광우병쇠고기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 쟁취 ▲광우병쇠고기 100% 불매투쟁 전개 ▲공안탄압 분쇄 및 80만 조합원 조종동 끝장내기 투쟁 전개 등을 결의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결의대회 연설을 통해 “총파업으로 일어난 촛불노동자 힘으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조직적 저항을 촉구하는 듯하다”고 비판하고 “보수언론의 비난, 정부와 사용자의 온갖 치졸한 탄압과 고소고발 그리고 구속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여기에 모였다”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적 열망에 복무한 민주노총 운송저지투쟁은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한 경찰에 가로막혔지만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투쟁을 촉구하고 “강제연행에 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촛불처럼 타오른 조합원들의 결의는 더 크게 단결해야 하고 이제는 총파업”이라며 전면투쟁을 거듭 호소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김태일 전사무총장의 안면을 으스러뜨리고 갈비뼈와 손가락을 부러뜨린 경찰 폭력, 내일은 또 다른 조합원 동지와 시민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이 야만적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격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촛불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난도질하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폭력이자 배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군화발에 짓밟힌 민주주의 고통은 곧, 노동가치와 국민 삶에 대한 치명적 도발임을 직시하며 우리는 오늘, 비장한 결의로 촛불을 든다”며 “퍼붓는 폭우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고 탄압은 촛불에 기름을 부을 뿐임을 총파업으로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수백만 촛불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 이명박 정부가 막다른 길에 몰린 쥐 꼴로 독재의 악취를 풍기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고 이명박정권의 독재적 탄압을 준열히 꾸짖고 “아이들이 촛불을 밝히고 어른들이 일어서고, 십자가가 일어서고 청명한 목탁이 독재를 꾸짖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 80만 조합원 동지와 1500만 노동자의 몫”이라며 “촛불을 들고, 총파업으로, 거리로 나가 촛불노동자의 힘으로 7월을 휩쓸어 반드시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는 짧고 힘있게 진행됐으며, 오후 6시50분부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잇고 있다.

<<7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현장 투쟁발언 전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사 전문=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 동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민중들을 위해, 촛불을 지켜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게 80만 조합원 이름으로, 1500만 노동자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신부님들에게 힘찬 감사 박수를 보내자.

동지들, 이명박정권은 두 번에 걸쳐 국민 앞에 사기적으로 사과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기극에 넘어가 아직도 머가 뭔지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에 어청수를 앞세운 공권력은 우리 민중들을 철저히 짓밟았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여 천천히 죽이려던 작전이 실패하자 군화발로 곤봉으로 방패로 바로 죽이려 한다.

촛불정신은 우리 어린 소년소녀들이 순수와 열정, 그리고 비폭력 평화적 기조를 갖고 내 건강권은 내가 지키겠다는 간절한 외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시험공부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모차에 아기를 싣고 주부들이 나오셨고, 오늘(2일)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이 일터를 나와 이곳에 모였다.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갖고 투쟁하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80만 조합원이(싸우고) 마지막 1명이 남을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는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민들께서 "민주노총만 믿는다"며, "이명박을 무릎 꿇리던지 해달라"시며 "민주노총만 믿는다"는 국민열망을 기억하는가. (국민열망에)부응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수 있나(일동=예).

'(이명박정권은)공공부문을 선진화하겠다'며, '물 사유화하겠다'며,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 시름을 또 한 번 외면했다. 광우병쇠고기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사람들이 양극화 속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고 비정규노동자들이다. 물가폭등 저지하고 공기업 사유화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주어진 과제를 안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있다. 단계를 높여가며 7월 한 달 동안 이명박정부와 정면승부하는데 과감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투쟁에)던질 수 있겠나(일동=예).

민주노총 깃발 들고 국민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나가자.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사명이다. 시대가 민주노총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권 지키고 물가폭등 막아내달라"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이 위대한 위업을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자. 저는 심부름꾼으로서 맨 앞에서 투쟁하겠다. 기필코 승리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꿈을 가지는 나라, 노동자가 해방되는 나라를 만들자. 끝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진군하자.

[사진3]

[표시작]

[사진4]◆피오나 국제건설목공노련 실장 연대사=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의 총파업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건강권, 사회현안,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고맙다.

[사진5]◆매그너스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 연대사=국제금속노련은 2억2천5백만명의 금속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국제금속노련은 여기에서 동지들을 만나면서 대단히 반갑다. 국제금속노련은 여러분의 파업권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것은 국제금속노련의 의무일 것이다. 2억2천5백만명의 전세계 금속노동자를 대표해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연대인사를 드린다.

[표끝]

[사진6]◆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동지들 반갑다. 이명박(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답답해할 것이다. 비가 이 정도 오면 집회 인원이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더 답답해 할 것이다.

오늘 금속노동자는 12만명이 2시간 부분파업을 선언했다. 최소한의 파업선언이다.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결단이다. 저희들은 중앙고섭 돌파가 이번 주 안에 안 되고, 이명박정권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보다 더 높은 강도로 파업을 벌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일) 브리핑했다. 국민경제를 파업이 망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나라 경제를 만들어왔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 손에 의해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한미쇠고기 재협상을 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경제를 바로 잡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 미래는 없다.

어제(1일) 아침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어제 중노위에서 조정신청 심의를 하고 있었다. 중노위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파업을)불법이라고 매도했다. 중노위 심판과 우리들이 벌이는 정당한 파업을 매도했다. (하지만 우리는)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당당히 싸우겠다. 지난 629선언 당시 우리는 3개월을 싸웠다.

이명박정권은 반드시 국민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린 학생들이 싸움을 시작했다. 우리 어린 딸들이 싸움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동참했고 이제 민주노총이 결합했다.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가 동참하고 내일(3일)은 목사님을 비롯한 개신교가, 그 다음은 (4일)스님을 비롯한 불교계가 동참한다. 이 나라 전체 백성이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것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정권은)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교섭 돌파를 위해 철저한 합법적 과정을 거쳐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과 청와대는 합법파업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합법파업 통해 끝까지 이명박정권을 압박하겠다. 동지들, 승리하는 그 날까지 당당히 싸워나가자.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